



도시샤여대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at Doshisha Women's College
同志社女子大学 韓国学 国際学術カンファレンス

세계 시민성과 한국 디아스포라
Global Citizenship and Korean Diaspora
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シップとコリアン・ディアスpora

[Panel 1]

해외한국학·다문화
Global Korean Studies & Multicultural
海外韓国学·多文化

[Panel 1-1]

한인 디아스포라와 글로벌 한국학

: 세계 시민성과 상호이해의 한국학

Korean Diaspora and the Global Korean Studies for Mutual Understandings

在日コリアンディアスporaとグローバル韓国学

: 世界市民性と相互理解の韓国学

이진영

Jean Young Lee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Inha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초록

본 논문에서 약 750만 명에 달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며, 이를 통해 한국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론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존재이며, 특히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한국과 거주국,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 시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논문은 일본의 재일한인 공동체를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구분하여, 이들의 이주 시기, 사회경제적 지위, 정체성 전략의 차이를 분석하고, 한인 디아스포라의 복합성과 역사적 다양성을 부각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단순히 고향을 떠난 민족적 이산의 존재로 보는 '디아스포라' 개념을 넘어, 한국과 세계를 가로지르며 활약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글로벌 한인(Global Korea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민족주의적 시각이나 혈연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한인을 세계 시민으로 인식하고, 남북한, 조선족, 고려인 등 다양한 배경을 포괄하는 개방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은 한국학이 기존의 문사철 중심·지역학 중심의 과거지향적, 한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디아스포라의 삶과 글로벌 정체성, 보편적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를 제시한다. 『파친코』는 재미동포 작가가 영어로 쓴 소설로 재일한인 가족의 4대에 걸친 삶을 다루며, 역사적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세계 문학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식민지와 전쟁, 차별과 생존의 서사를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휴먼스토리로 풀어내며, 한국적 경험을 세계 보편의 언어로 전달한 성공적인 글로벌 한국학의 모델로 제시된다. 저자는 이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민성과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학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아닌, '한인'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동시에 한국인의 경험을 통해 인류 보편의 질문에 답하는 학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시민성과 상호이해에 기반한 글로벌 한국학은 민족 중심 담론을 넘어서는 동시에, 한국인의 복합적 정체성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열린 지식의 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한국학, 글로벌 한국학, 한인, 재외동포, 디아스포라, 세계시민성

Abstract

This study reexamines the historical trajectories and identities of approximately 7.5 million members of the Korean diaspora, arguing for a paradigmatic shift in both the object and methodology of Korean Studies. The Korean diaspora, no longer reducible to a single national identity, represents a multilayered and fluid community that connects Korea, host societies, and the world as active global citizens. Through the case of the Zainichi Koreans, distinguished into “oldcomers” and “newcomers” according to migration periods, the analysis highlights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positions, identity strategies, and community dynamic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heterogeneity and historical complexity of diaspora experiences.

The paper proposes the concept of the “Global Korean”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diaspora discourse, moving beyond nationalist or bloodline-centered narratives. This perspective situates Koreans worldwide as active agents who embody cosmopolitan values, transcending the confines of homeland-centered identity. It further calls for an expanded vision of Korean Studies—shifting its focus from Korea itself to Koreans across the globe, from past-oriented philology and area studies toward an inclusive, interdisciplinary, and dialogic scholarship.

The study emphasizes that Korean Studies must address not only Korea and North Korea but also diasporic communities in diverse regions, thereby linking local experiences to universal human concerns such as migration, identity, discrimination, and resilience. The exemplary case of Min Jin Lee’s *Pachinko* illustrates how a Korean diasporic narrative can achieve both scholarly depth and universal resonance, transforming specific historical experiences into a global human story.

Ultimately, the paper argues that Korean Studies should evolve into a “Global Korean Studies” rooted in world citizenship and mutual understanding. Such a framework enables the discipline to transcend ethnocentric limits, embrace the plural identities of Koreans, and contribute to broader humanistic and social scientific discourses on coexistence, diversity, and global interconnectedness.

Keywords : Korean Diaspora, Korean Studies, Overseas Koreans, Mutual Understandings, Korean Wave

I. 서론: 한인 디아스포라와 글로벌 한국학의 재정립 필요성

한반도를 떠나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는 오늘날 약 75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의 규모와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과거의 고단했던 이산(離散)의 역사가 한국 사회에 다문화·다인종 시대의 성찰적 거울이 되고 있는 동시에, 최근에는 한인들의 이주사를 다룬 문학, 영화, 드라마(예: 『파친코』, 『미나리』)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 화제를 모으며 디아스포라 서사가 보편적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기존의 '디아스포라' 개념은 특정 민족이 본래의 정주지를 떠나 흩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며, 종종 모국 중심적 시각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를 함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재외한인들은 다양한 이주 역사와 현지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개념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거주국과 모국을 넘나드는 초국적(transnational) 존재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적인 '디아스포라' 개념을 넘어 '글로벌 한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적 재정립은 한국학의 연구 패러다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학은 오랜 기간 '국학(國學)'으로서의 내부적 시각이나 냉전기 '지역학(Area Studies)'으로서의 외부적 시각 사이에서 정체성 논쟁을 겪어왔다. 특히 과거에는 문학, 역사, 철학 중심의 전통 시대 연구에 치우쳐 현대의 역동적인 한인 사회 변화를 포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복합적 현실을 학문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한국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론을 확장하는 새로운 비전, 즉 '글로벌 한국학'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한국학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두 개념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기존 연구는 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서술하거나, 한국학의 개념적 범위를 논하는 데 그쳤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별적 논의를 통합하여, 한인 디아스포라를 '글로벌 한인'으로 재규정하는 것이 어떻게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한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논한다. 재일한인 디아스포라를 사례로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학이 나아가야 할 네 가지 방향성(연구 대상의 확장, 학제간 융복합, 보편성 추구, 상호이해 지향)을 제시한다. 소설 『파친코』를 사례로 들어 한인 디아스포라의 서사가 어떻게 한국학적 가치와 글로벌 보편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 IV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고, 세계 시민성과 상호이해를 향한 글로벌 한국학의 비전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II. 한인 디아스포라의 재개념화: 이산(離散)에서 초국적 행위자로

1. 전통적 디아스포라 개념의 한계

전통적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는 본래의 정주지를 떠나 세계로 이산(離散)한 특정 민족 집단을 가리키며, 혈연적 유대와 모국에 대한 향수를 주된 정체성으로 삼았다. 이 개념은 '고단했던 이산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때로는 타국에서 고난을 겪는 수동적이고 피해자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현대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여러 한계를 지닌다.

오늘날의 재외한인은 일제강점기 이주민, 냉전기 이주민,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시대 이주민 등 다양한 이주 역사를 지니며, 거주 지역의 문화와 융합하여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층적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이들은 단순히 모국을 떠나 타국에 흩어진 '이방인'이 아니라, 거주국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한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이어가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21세기의 초국적(transnational) 이주는 한인들이 모국과 거주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국경을 초월한 정체성을 구축하게 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디아스포라' 개념이 담지하는 이산과 향수의 정서만으로는 이들의 역동적인 삶과 정체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2. '글로벌 한인' 개념의 도입

한인 디아스포라의 복합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이들을 '글로벌 한인(Global Korean)'으로 재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글로벌 한인'이란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전 지구적 무대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체적 행위자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이유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더욱 포용적이고 전향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기여한다.

첫째, '글로벌 한인'은 세계 시민적 가치와 정체성을 강조한다. 많은 재외한인들은 거주국에서 모범적 소수민족으로 자리매김하여 현지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에도 일조해왔다. 이러한 공헌은 더 이상 '떠돌이 이방인'이라는 과거의 프레임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이들을 지구촌 시대의 능동적인 '글로벌 인재'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글로벌 한인'이라는 용어는 민족 중심주의적 관점을 넘어, 한국인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공존하고 기여하는가를 조망하게 해준다.

둘째, 이 개념은 재외한인을 바라보는 모국의 인식 전환을 촉진한다. 과거 한국 사회는 재외한인을 '동포'라는 혈연적 정서와 함께 단일민족 신화에 입각한 일원으로 간주하거나, 때로는 단순히 국외에 부재하는 존재로 여기는 시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수주의적 내러티브는 세계사적 이주와 문화 혼성의 현실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글로벌 한인'이라는 재규정은 모국 사회가 재외한인을 트랜스내셔널한 한국인의 일부로 인식하고, 폐쇄적인 민족 담론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주의적 상상력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도록 이끌 것이다.

셋째, '글로벌 한인'은 남북한을 아우르는 포괄성을 지닌다. 현재 재외한인 사회는 남한 출신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역사적 분단과 이념을 넘어 공통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한다. '글로벌 한인'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범민족적 연대의식을 반영함으로써 분단 시대의 산물인 '해외 동포' 개념보다 진일보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재일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와 성격: '올드커머'와 '뉴커머'

1)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시작

일본의 재일한인 디아스포라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들은 이주 시기, 사회경제적 배경, 정체성 형성 요인에 따라 크게 '올드커머(Oldcomer)'와 '뉴커머(Newcomer)'로 분화되어 왔다. 물론, 이는 분석을 위한 편의적 단순화이며, 그 양상은 훨씬 다양하고 문화적이다.

'올드커머'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친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 동원, 빈곤, 혹은 기회를 찾아 일본으로 이주하여 해방 후에도 일본에 남은 한인들의 후손을 일컫는다. 이들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영주권자로서 일본 내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으며 고유한 공동체를 형성해왔다. 이들의 정체성은 해방 후 모국의 이념적 분단이 일본 내 한인 사회에 투영되면서 민단(在日本大韓民國民団)과 총련(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으로 나뉘는 정치적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반면 '뉴커머'는 주로 1980년대 이후 유학, 취업, 또는 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비교적 신규 이주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올드커머와 달리 일본 사회에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하거나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분화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와 공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모하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2)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특징 비교

두 집단의 차이는 인구 구성,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 방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올드커머 공동체는 오랜 역사적 고난 속에서 차별과 곤경을 견디며 자신들만의 학교, 문화, 비즈니스(예: 파친코 산업)를 일구어왔다. 이들은

거주민의 이동이 적고 정주성이 강한 오사카 이쿠노와 같은 전통적 한인촌을 형성했지만, 점차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들은 일본 사회의 점진적 동화와 함께 권익 신장 운동을 통해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투쟁해왔다.

이에 반해 뉴커머 공동체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화 시대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K-POP과 한류를 매개로 문화적 교류를 이루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정체성 전략을 보인다. 이들의 거주지는 도쿄 신오쿠보와 같이 유동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초국적 이주의 거점이자 사회적 상승 이동의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음 표는 두 집단의 핵심적인 차이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구분	올드커머	뉴커머
주요 이주 시기	일제강점기 (1910-40s)	1980년대 이후
정체성 형성 요인	식민지배, 차별, 이념적 분화	한국의 경제성장, 한류, 유학/취업 목적
주요 거주 지역	오사카 이쿠노 등 전통적 한인촌	도쿄 신오쿠보 등 신규 커뮤니티
커뮤니티 성격	정주성, 인구 감소 추세	높은 유동성, 역동성
정치적 문화	민단/총련	상대적으로 비정치적
대표적 생계 수단	파친코 산업, 제조업	다양한 전문직, 서비스업

이러한 재일한인 사회의 문화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내부적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한국학이 한반도 내부의 역사와 현실만을 다루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재외한인 사회의 현실을 세심하게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재일한인 공동체의 문화는 단순한 인구학적 차이를 넘어, 한국의 근현대사가 재외한인들의 삶과 정체성에 어떻게 각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I.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 한반도 중심에서 한인 중심으로

1. 전통적 한국학의 한계와 성격

한국학은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적으로 한국학은 내부적 시각에서 한국의 역사·문화를 연구하는 '국학'과 외부적 시각에서 한반도를 연구하는 '지역학'의 종합된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이원적 성격 속에서, 과거의 한국학 연구는 시간적으로는 전통 시대, 학문적으로는 문사철(文史哲) 즉 문학·역사·철학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형성되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담아내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한편, 해외에서의 한국학은 냉전기 지정학적 필요에 의해 발전된 '지역학'의 틀 속에서 주로 발전해왔다.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한국어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위해 초창기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그 결과 해외 한국학은

오랫동안 언어 교육과 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문화 중심적 접근은 한국을 단순히 언어 습득의 대상이나 특수한 문화 현상으로만 인식하게 하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경제·사회 구조나 디아스포라와의 연계성 등 거시적인 문제의식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낳았다.

2. 글로벌 한국학의 지향점

따라서 한국학은 이러한 전통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그 핵심은 연구 대상을 한반도 내부의 '한국'에서 전 세계의 '한인'으로 확대하고, 한국 중심의 일방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다중 시각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글로벌 한국학이 추구해야 할 네 가지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글로벌 한국학은 과거의 전통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한국 사회와 북한 사회를 포괄해야 한다. 분단 이후 북한에 대한 연구는 종종 주변화되었으나, 남북한의 역사가 교차하며 형성된 한반도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구상에도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재외한인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적극적으로 연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한국학은 더 이상 한반도 내의 한민족만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이민사, 재외동포 사회, 다문화 현상 등을 포괄하는 확장된 지평을 가져야 한다. 가령 미주 한인 사회의 이민 역사, 중국 조선족의 문화 변동,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정체성 연구 등은 한국학이 글로벌 맥락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들이다.

셋째, 학제간 접근과 보편적 이슈와의 접목이 필요하다. 한국학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특수학'이 아니라, 한국의 경험을 통해 인류 보편적 문제를 탐구하는 '보편 학문'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의 산업화·민주화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형과 비교하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세계적 인구문제와 연관지어 연구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융복합 연구는 한국학이 로컬과 글로벌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넷째, 상호이해의 학문으로서의 자세이다. 글로벌 한국학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일방향적 홍보나 미화를 넘어, 다른 문화권과의 대화 속에서 한국과 한인을 이해하는 학문을 지향한다. 이는 연구 주체 또한 한국인 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 한국학자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업을 통해 복수의 시각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국학은 자기완결적 국지 학문이 아닌, 전 지구적 학문 공동체와 소통하는 열린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다음 표는 이러한 한국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약한다.

구분	전통적 한국학	글로벌 한국학
----	---------	---------

주요 연구 대상	한반도 내 한국의 역사, 문화, 문사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한인 공동체
주요 연구 방법론	고전적 인문학 중심	학제간 융복합적 접근
지향점	국지적, 자기 완결적 지식	보편적 담론 기여 및 상호이해
연구 주체	주로 한국인 연구자	한국인-외국인 연구자 협력

이처럼 한국학의 목표는 한국 사회 현상을 세계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인류 보편의 담론에 기여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특수성을 탐구하되, 그것을 보편 학문 담론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한국학이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는 한국을 이해하는 상호 교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3. 이민진의 『파친코』가 던지는 함의

1) 서사적 깊이와 한국학적 가치

이민진 작가의 장편소설 『파친코(Pachinko)』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서사가 어떻게 한국학적 깊이와 글로벌 보편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재미한인 작가가 재일한인 가족의 역사를 다룬 이 소설은 한국학 연구의 확장된 지평을 실천적으로 구현한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조선을 떠나 일본에 정착한 한인 가족의 4대에 걸친 일대기를 그리며, 재일한인사(史)의 고난과 투쟁을 심도 있게 묘사한다. 주인공 선자 일가는 식민지배와 전쟁, 분단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일본 사회의 멸시와 차별을 견디며 살아간다. 특히 소설의 제목이자 재일한인 올드커머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되었던 생계 수단이었던 '파친코' 산업에 대한 묘사는 이들의 신산했던 삶과 사회경제적 입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파친코』는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과 역사적 현실을 서사의 주축으로 삼고 있어, 한국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중적 서술이라 할 수 있다.

2) 보편성 획득과 글로벌 공명

『파친코』가 진정으로 주목받는 지점은 이러한 한국적 소재를 전 인류 보편의 드라마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민진은 이 작품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집필하여 미국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그 결과,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에 선정되고, 이후 애플TV+ 드라마로 제작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러한 성공은 특정 민족의 이야기가 특정 문화권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명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한다. 평단과 독자들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가족, 정체성, 실향(displacement)"의 보편적 주제에 주목했다. 즉, 사랑과 희생, 가족과 세대 간의 갈등, 정체성의 혼란, 차별과 저항, 생존과 번영 등 인간 사회의 보편적

경험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이 이방인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고유한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어느 사회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휴먼 스토리로 기능한다.

결론적으로, 『파친코』의 성공은 본 논문이 제시한 글로벌 한국학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작품은 한국인의 경험을 세계 문학의 일부로 승화시키고,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적 인간사를 훌륭하게 결합하였다. 이 소설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독자들은 재일한인의 역사와 한민족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곧 글로벌 한국학이 지향하는 '상호이해'의 이상이 실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IV. 결론: 세계 시민성과 상호이해를 향한 글로벌 한국학

본 연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개념적 재조명과 글로벌 한국학의 방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일부이자, 동시에 세계 이민사 속의 보편적 이야기임을 확인하였다. 이들을 '글로벌 한인'이라는 틀로 이해하는 것은, 한민족 공동체를 국경과 이념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재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한인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을 부여하고, 모국 한국에는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민족 담론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전통적인 한국학이 지녔던 한계를 지적하고, 학문적 지평의 확대와 전환을 촉구하였다. 한국학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학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인에 대한 학문'으로 나아가, 한국인의 경험을 통해 인류 보편의 질문에 답하는 학문으로 거듭나야 한다. 『파친코』 사례가 보여주듯이, 한국과 한인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보편적 공명을 얻을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향후 연구는 글로벌 한국학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첫째, 한인 디아스포라와 다른 디아스포라 그룹(예: 유대인, 화교, 아일랜드계 등)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민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보편적 모델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아시아 고려인, 중국 조선족 등 특정 지역 한인 공동체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이들의 복합적인 삶을 다각도로 조명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국제적 학술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학 연구자들은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다양한 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외국 연구자들과 협력하며, 연구 성과를 다양한 언어로 발신함으로써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학문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성과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글로벌 한국학은 특정 민족의 경험을 넘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 통찰을 추구하는 길이다. 이러한 학문적 풍토 속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와 공유되며, 한국학은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는 한국을 이해하는 상호 교류의 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한국학, 곧 글로벌 한국학의 비전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김백영, 「재외한인, 소환되는 기억과 현재적 과제」. 아시아브리프 3권 45호, 2023.
- 김웅기, 「한국사회는 왜 '비북(非北)' 조선적자(朝鮮籍者)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가?」.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부산, 2024.11.22.
- 김웅기, 「일본 중앙정부에 의한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저해요소로서의 재일코리안」. 일본문화학보 98, 2023, 79–98쪽.
- 김경은, 「한국학 개념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소식지, 2018년 10월호.
- 서호철·김철식·장문석·정현목·허윤, 「한국학에 대한 단상: <한국적인것의 표상들> 연구과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제48권 제2호 통권 179호, 2018, 151–190쪽.
- 이진영, 「한국학의 발전과정과 글로벌 한국학: 현황과 방향」. 이진영 외, 「글로벌 한국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정체성의 정치와 공공외교의 한국학」. 북코리아, 2024, 14–40쪽.
- 정병호·이주희·임성숙, 「한인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민족이산의 역사와 초국가적 한민족」.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아카데미 K-MOOC, 2023.
- 채미화, 「동아시아 한국학 방법의 모색」. 한국학연구 제17집, 2007, 1–22쪽.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학 현황과 한국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과제: 해외 한국학 호황, 세계 문화 발전의 증거」. KOFICE 문화산업, 2020.